

코로나19

▶ 고위험군 4차접종 필요성·효과성

- 4차 예방접종 대상자는 50세 이상 연령층 중 3차접종 이후 4개월이 경과하신 분
- 요양병원·시설 대상자, 면역저하자 중 4개월이 경과하신분
- 중증·사망 예방을 위해 **4차접종**에 꼭 참여해 주세요.
- 4차접종 시 사망위험은 미접종군에 비해 96%, 3차접종군에 비해 75% 감소합니다.

2022.08.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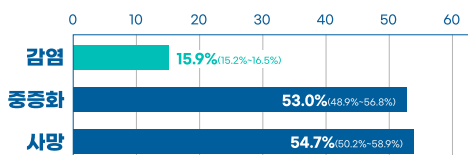
질병관리청

4차접종 효과성

Q. 4차접종이 중증·사망 예방에 효과적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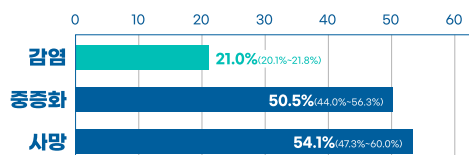
4차접종을 통해 고위험군의 중증·사망 예방을 높일 수 있습니다.
60세 이상의 코로나19 4차접종 효과 분석에서
중증화 예방효과 **53.0%**, 사망 예방효과 **54.7%**로 나타났습니다.

60세 이상의 3차접종 대비 4차접종 예방효과



1) 성, 연령대, 지역, 접종 대상군(면역저하자, 요양병원·시설) 보정
(분석기간대상) '22.2.16. ~ '22.5.28., 3차접종 후 4개월이 경과한 4차접종 대상자
- 60대 이상 10,025,954명 중 3차접종군 6,997,807(69.8%), 4차접종군 3,028,147(30.2%)

면역저하자, 요양병원·시설 구성원의 3차접종 대비 4차접종 예방효과



중앙방역대책본부 2022년 6월 16일 보도참고자료

가을철 대표적인 발열성질환에 대해 알아보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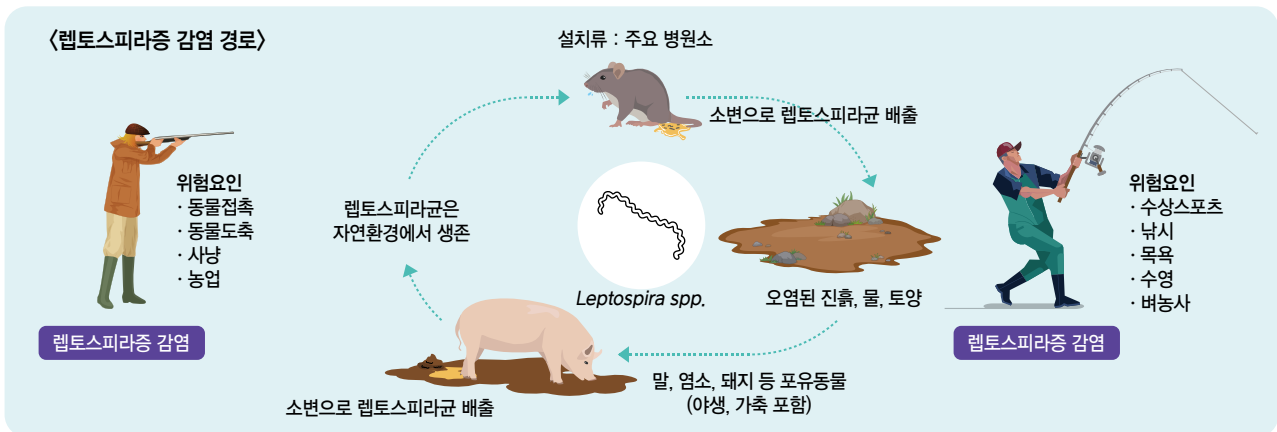
01

렙토스피라증

렙토스피라증은 렙토스피라균에 의한 감염증입니다. 원인, 증상, 검사, 치료, 예방수칙에 대해 안내합니다.

1. 원인

렙토스피라증은 감염된 동물의 분비물에 직접 접촉하거나, 오염된 물이나 음식을 먹거나 비말을 통해 감염됩니다. 그러나 사람 간의 전파는 거의 없습니다.



2. 증상

발열, 오한, 결막부종, 두통, 근육통, 오심, 구토 등의 독감 유사증상이 4~7일간 지속됩니다. 기침과 흉통이 주증상이며, 일부에서 객혈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3. 검사

혈액, 소변, 뇌척수액, 조직에서 렙토스피라균 검출을 확인하여 진단합니다.

4. 치료

대증적 치료와 동시에 항생제 투여를 하며, 항생제는 가능한 조기에 투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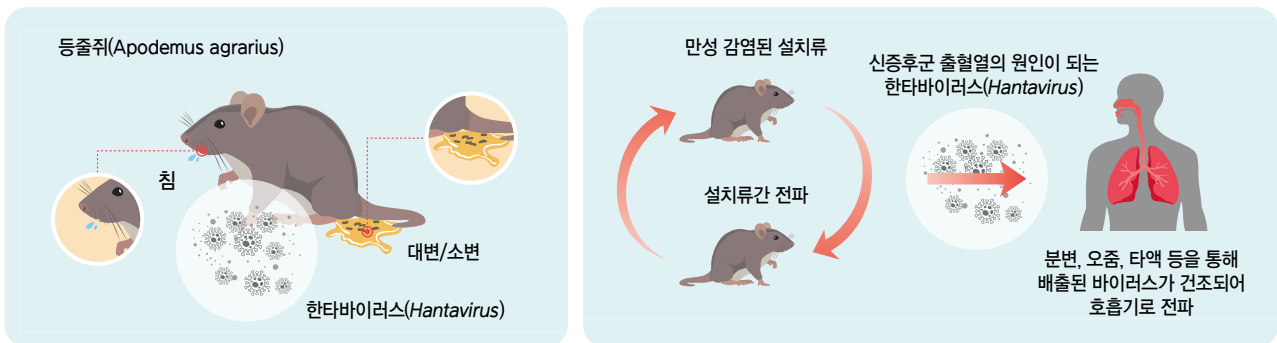
5. 예방수칙

고여있는 물 등 균 오염이 의심되는 물에서 수영하지 않고, 고여있는 물에서 작업을 할 경우 방수처리가 된 작업복 특히 장화를 반드시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처부위는 방수밴드로 보호해야 합니다.

유행성출혈열은 신증후군출혈열이라고도 불리며 한타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급성 발열성 질환입니다. 원인, 증상, 검사, 치료, 예방수칙에 대해 안내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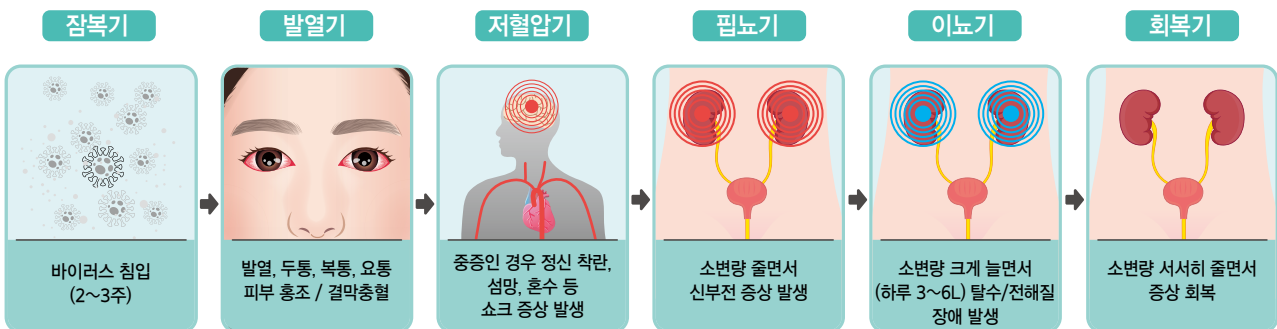
1. 원인

바이러스에 감염된 설치류의 배설물, 소변, 타액 등을 통해 바이러스를 몸 밖으로 배출하는데, 이것이 건조되어서 먼지와 함께 공중에 떠다니다가 상처난 피부 또는 눈, 코, 입 등을 통해 전파됩니다.



2. 증상

발열기, 저혈압기, 핏노기, 이노기, 회복기의 총 5단계로 증상이 발생하는데, 저혈압기나, 핏노기를 거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3. 검사

혈액, 소변, 뇌척수액에서 특이 항원을 검출하여 진단합니다.

4. 치료

증상이 5단계로 구분되어 있어 의사의 판단에 따라 내과적 대증치료를 받습니다.

5. 예방수칙

유행지역의 산이나 풀밭에 가는 것을 피합니다. 쥐와의 접촉을 피하고 설치류의 배설물, 타액 등의 접촉을 최소화합니다. 감염위험이 높은 사람은 예방접종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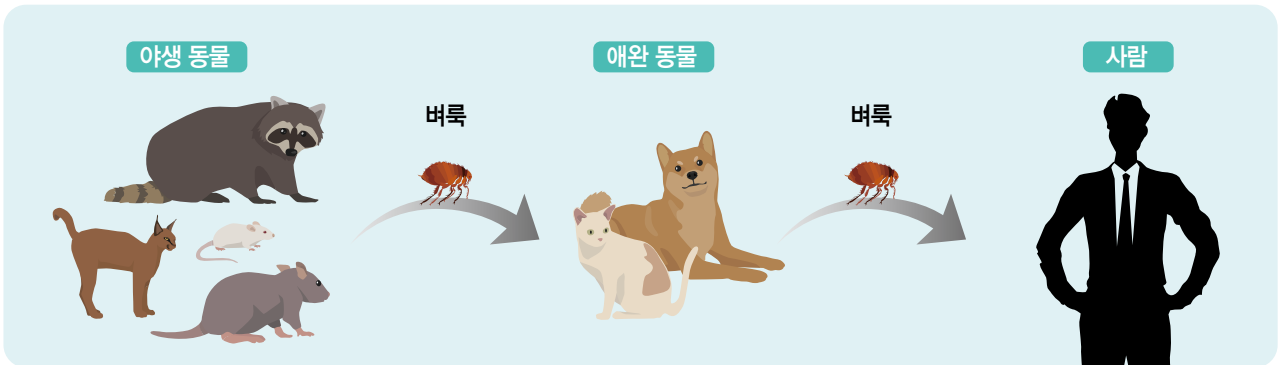
03

발진열

발진열은 발진열 리케치아균 감염에 의한 급성 발열성 질환입니다.
원인, 증상, 검사, 치료, 예방수칙에 대해 안내합니다.

1. 원인

발진열은 주로 쥐벼룩에 의해 전파가 됩니다. 감염된 쥐벼룩의 배변 속 균이 피부를 긁을 때 생기는 미세 상처를 통해 감염됩니다.



2. 증상

발진티푸스와 비슷한 증상을 보이지만 발진티푸스보다 약합니다. 주요 증상은 발열, 두통, 오한, 발한, 구토, 근육통, 발진 등이 있습니다.



3. 검사

혈액, 피부조직에서 발진열 리케치아균을 검출하여 진단합니다.

4. 치료

발열이 소실된 후 2~3일까지 항생제 치료를 받습니다. 치료가 지연되면 중증 감염으로 진행될 수 있으므로 빠른 치료가 필요합니다.

5. 예방수칙

주위 환경에 쥐가 서식하지 못하도록 하고 벼룩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쥐벼룩은 항상 숙주 몸에 붙어 기생하기 때문에 의복 세탁과 목욕을 반드시 하도록 합니다.